

# 미션나노디그리 이수 수기 우수사례집

## 2026학년도 미션나노디그리 이수 수기 공모전

- 미션나노디그리로 써 내려간 나의 성장 스토리 -



배운 것을 업무와 삶에 연결한 세 학생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나의 관심과 목표에 맞는 과정을 찾아보세요

## 미션나노디그리란?

교육 수요의 변화와 사회·사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소단위 교육과정입니다.

미션나노디그리로 넓어지는 배움의 가능성

01

### 전공을 더 깊게

전공의 세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요.

02

### 관심 분야를 더 넓게

다른 전공의 관심 분야를 배우며 학습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03

### 나의 경쟁력을 더 높게

배운 역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이수 인증서로 학습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 미션나노디그리로 달라진 세 가지 이야기



최우수상 · 한예은

세법 지식을 회계 실무의 강점으로

전공: 재무·회계·세무학과

미션나노디그리: 조세법

04-08쪽



우수상 · 김동현

거래를 넘어,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야로

전공: 부동산학과

미션나노디그리: 부동산개발

09-13쪽



장려상 · 박유미

아이를 고치려 하기보다, 이해하는 교사로

전공: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아동학과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14-18쪽

최우수상 · 한예은

# 회계 실무에 세법을 더하다

전공: 재무·회계·세무학과

미션나노디그리: 조세법

세무교과목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심화

소득세법

법인세법기초

부가가치세법

“회계 경험에 세무 역량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일러스트는 실제 인물과 무관합니다.

최우수상 · 한예은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01

### 회계와 세무를 연결해 이해했어요

개념·법조문·실무 사례·계산 연습을 함께 익히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소득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02

### 배운 세법으로 업무를 개선했어요

세무조정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 외부 세무사 의존도를 낮추고, 매출세액 계산 오류를 발견·수정했습니다.

03

### 자격증 준비에 활용했어요

과정에서 배운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재경관리사 시험의 세법 과목을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상 · 한예은

## 미션나노디그리 조세법 이수경험 보고서

### 세무 역량을 갖춘 회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

저는 재무·회계·세무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재 기업 회계팀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주로 일반회계(재무제표 작성, 결산 보조)에 치중되어 있어, 세무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늘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세무 역량을 갖춘 회계인'이라는 포지션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이력서에 쓸 만한 세무 관련 자격증이나 체계적인 학습 경험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미션나노디그리 '조세법' 과정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저의 두 가지 목표인 현 업무에 세법 지식 적용, 이직 시 세무 역량 어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 세법을 배우며 회계와 세무의 접점을 이해하다

조세법 미션나노디그리에 포함되는 과목 중 세법개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이수하였습니다.

세법개론은 조세의 개념, 세법의 원칙,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기본 구조를 학습하는 과목으로, 세금이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닌 법적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관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목을 통해 단일 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국세징수법 등 여러 법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다른 세법 과목을 학습할 때 큰 틀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를 다루는 과목으로, 기초에는 익금·손금의 개념과 세무조정 기본 원리를, 심화과정에는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국제조세 등 고급 주제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정 단원은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다루는데, 이 부분을 통해 회계와 세법의 접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 현 업무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업무를 담당할 때 세무조정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 보았으며, 이는 팀 내에서 세무 역량 보유자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우수상 · 한예은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리를 배우다

소득세법은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개인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을 학습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연말정산 구조, 원천징수 제도 등을 배웠으며,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단원은 실제 내 소득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과목을 이수한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답변이 조금 더 수월해졌으며, 이는 세법 지식 보유자로서 내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의 구조를 다루는 과목으로, 과세표준, 세액 계산, 전단계세액공제, 영세율, 면세 제도 등을 학습했습니다.

## 업무와 연결해 배우며 세법의 어려움을 넘다

저는 각 과목별로 '개념 → 법조문 → 실무 사례 → 계산 연습' 순서로 노트를 정리하며 학습했습니다. 특히 현 업무에서 다루는 문서(예: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등)를 직접 세법 조항과 대조하며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법조항이 혼란스러웠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 '어떤 소득이 어떤 세목에 해당하며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세법 특유의 전문 용어(예: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과세표준, 세액공제 등)와 복잡한 계산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용어 사전을 만들어 매일 5개씩 외우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며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심화 과정의 '이월결손금 공제'나 '세액공제 한도 계산' 같은 단원은 계산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여러 번 틀리기도 했지만,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문제를 3~4회 반복 풀이하며 계산 감을 익혔습니다.

현 업무에서 세무 관련 문의가 있을 때마다 나노디그리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며 '학습 → 적용 → 피드백'의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이론을 실무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배운 세법을 활용해 세무 업무의 폭을 넓히다

저는 조세법 나노디그리 이수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현 업무에 즉시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 배운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을 실제 회사 결산 업무에 적용하여, 기존 외부 세무사에만 의존하던 업무를 내부에서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운 '전자세금계산서 오류 수정 절차'를 활용하여, 회사 매출세액 계산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팀 내에서 '세무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평가받았으며, 상사로부터 '세무 관련 업무도 맡아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우수상 · 한예은

##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이력서와 면접에 담다

저는 조세법 나노디그리 이수를 완료한 후, 이력서에 '조세법 미션나노디그리 이수(세법개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강 완료'가 아니라 '실무 적용 가능한 세법 지식 보유'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는 '조세법 나노디그리 이수를 통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원천징수 오류 수정, 부가세 신고서 작성 등 실무 역량을 강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회계재무로 성장하고 싶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세법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해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법인세법에서 배운 세무조정 명세서를 실제 결산 업무에 적용하여 외부 세무사 의존도를 낮췄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실무 역량 보유자'로 평가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 세법, 이제는 나의 무기

조세법 나노디그리 이수는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추후 세무사 시험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나는 현재 회계 관련 자격증(재경관리사)을 준비 중이며, 나노디그리에서 배운 법 지식을 바탕으로 자격증 시험의 세법 과목을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나노디그리 → 자격증 → 이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세법 미션나노디그리를 이수하기 전, 저는 세법을 '어렵고 지루한 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수를 마친 지금, 세법은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도구'이자, 나의 이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었으며, 이제 저는 세무 관련 뉴스를 볼 때 '어떤 법조항이 개정되었는지', '이 정책이 어떤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고방식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세무사 시험 준비를 계속하며, 조세법 나노디그리에서 얻은 기초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세무 컨설팅이나 세무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입니다.

미션나노디그리는 저에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와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배움은 결코 늦지 않으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세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 · 김동현

# 길에서 보던 건물, 이제는 개발 가능성이 보입니다

전공: 부동산학과

미션나노디그리: 부동산개발

세부교과목

AI활용부동산개발프로젝트실무

부동산공법

소규모부동산개발실무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금융론

재개발재건축론

“거래를 넘어, 건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일러스트는 실제 인물과 무관합니다.

우수상 · 김동현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01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공법·개발·금융·실무를 배우며 거래와 시세를 넘어 땅의 개발 가능성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02 배운 이론을 직접 적용해 봤어요**  
실제 필지에 용적률을 대입하고 건축 AI 설계 도구로 가상 설계를 시도하며, 배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03 다음 도전이 구체화됐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동네와 상권에 활기를 더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의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우수상 · 김동현

## 등기부등본 1200통과 손편지 한 통, 그리고 생산자의 언어

### 1,200통의 등기부에서 시작된 궁금증

저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건물을 보면 저 건물은 언제, 누가 샀을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건물등기부를 보면 건물주의 인생스토리가 보입니다. 저는 그 인생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봅니다. 그렇게 확인한 등기부가 어느새 아파트 1,000여 통, 길에서 마주친 상권 건물 200여 통이 됐습니다. 등기부는 저에게 가장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듯 바로 와닿았고 확실한 공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통 한 통 볼 때는 몰랐는데, 수백 통이 쌓이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지켜 낸 부동산의 등기부는 조용했습니다. 소유권은 수십 년씩 유지되고, 이전 원인에는 매매 못지않게 증여가 많았습니다. 근저당은 위험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대출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오래 보유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찍힌 취득 날짜들은, 부동산이 짧은 거래가 아니라 긴 시간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동산개발 미션나노디그리까지 이어진 저의 공부는 전부 이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를 넘어 개발에 필요한 준비를 깨닫다

광주의 한 대로변에서 10층이 넘는 건물 다섯 채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 뒤에 1부터 5까지 번호만 바뀌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신기해서 등기부를 떼어 보니, 한 회사가 수년에 걸쳐 가장 작은 건물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올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다섯 채를 쌓아 올린 시간이 등기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마침 토지 등기에 적힌 주소로, 배움을 청한다는 손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아침,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의 조언은 무용담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영어학원을 시작으로 작은 건물부터 마련했고 그 건물을 담보 삼아 바로 옆에 더 큰 건물을 올리기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지와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려면 신용이 필요하고, 신용은 계획서가 아니라 현장의 실적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경매나 매매는 유통이고, 저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생산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유통의 세계만 보고 있던 것입니다. 대표님은 자금을 모으고 경험을 쌓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우수상 · 김동현

## 부동산공법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자격시험에 도전하다

그 말을 따라 현장부터 뛰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건물 전문 중개법인에 들어가 수많은 건물주와 통화하고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는 사람은 결국 현금흐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이 높았습니다. 은행은 현금흐름을 보고 대출을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1,000여 통에서 본 패턴이 현장에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건물은 종잣돈과 신용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쌓일수록 갈증이 커졌습니다. 저는 거래와 보유는 익혔지만, 저 건물이 애초에 그 자리에 그 규모로 설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이 말한 생산자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부동산학과에 진학하고, 학과의 미션나노디그리 부동산개발 과정을 발견하자마자 신청한 이유입니다.

다섯 과목은 흩어져 있던 경험을 하나의 지도로 엮어 주었습니다. 부동산공법에서는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처럼 이름은 비슷한데 역할이 다른 개념들이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공법을 배울수록 내용들이 실제 건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건물 위층이 계단처럼 깎여 있는 것은 일조권 사선제한 때문이었고, 건물을 키우려면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 같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높이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도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전부 돈이며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던 그 건물들이 왜 그 모양으로 서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A+라는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얻은 재미와 자신감이 계기가 되어, 지금 저는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노디그리가 자격증 도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개발 원리를 배우며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부동산개발론과 부동산개발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왜, 어떤 순서로 짓는가’라는 기획의 논리를 배웠고, 부동산금융론에서는 현장에서 봤던 근저당의 패턴이 레버리지라는 이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전환점은 소규모부동산개발실무였습니다. 개발은 대형 시행사만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개인도 작은 규모에서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확인하고 싶어 건축 AI 설계 도구로 실제 필지에 용적률을 대입한 가상 설계도 돌려 보았습니다. 이론을 배우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도구로 시뮬레이션까지 해 보는 사이, 부동산을 보는 저의 시야는 유통하는 사람에서 생산하는 사람의 것으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우수상 · 김동현

##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다

인증 요건은 12학점으로 네 과목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섯 과목 15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증서가 아니라 다음 과목이 궁금해서 수강신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학기 만인 2026년 7월, 부동산개발 미션나노디그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길을 걸을 때 전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간판과 시세가 보였다면, 지금은 용도지역과 남은 용적률, 그 땅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중개 현장에서 익힌 유통의 언어 위에, 미션나노디그리로 배운 '생산의 언어'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 동네에 활기를 더하는 소규모 개발을 준비하다

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소규모 개발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 가는 분야가 있다면 후배들에게도 미션나노디그리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1,200통의 등기부가 되고, 한 통의 손편지가 되고, 자격시험 도전과 생산자라는 목표로 자라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주셨던 그 건물 대표님이 건물을 1호부터 5호까지 하나씩 쌓아 올렸던 그 시간처럼 저도 저의 첫 번째 건물을 향해 한 층씩 올라가는 중입니다. 미션나노디그리는 그 첫 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으고 경험을 쌓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던 그 약속에 준비된 모습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장려상 · 박유미

# 12년의 경험에, 아이를 이해하는 새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전공: 사회복지학과 · 복수전공: 아동학과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세부교과목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모래놀이치료

발달진단및심리평가

아동상담

“아이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일러스트는 실제 인물과 무관합니다.

장려상 · 박유미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01

###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아동관찰과 놀이치료를 배우며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02

###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게 됐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과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려 주게 되었습니다.

03

### 질문이 달라졌어요

“왜 못할까?”에서 “무엇이 어려운 걸까?”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장려상 · 박유미

##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 12년의 경험에 새로운 질문을 더하다

12년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마다 성격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도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아이를 이해하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살이었던 그 아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 표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린이집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컵으로 물 먹는 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또래보다 말이 늦을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어린이집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컸지만,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살피는 공부

그 무렵 저는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상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발달정신병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등의 과목을 배우면서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를 배우면서 ‘관찰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행동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놀이치료와 모래놀이치료를 배우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에게는 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와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려상 · 박유미

## 가정과 함께 아이를 이해하고 돕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왜 못할까?’라는 생각 대신 ‘무엇이 어려운 걸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가 아니라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의 현재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가정에서의 생활과 어린이집에서의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은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작은 변화라도 서로 공유하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소통을 통해 가정에서도 아이를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었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에게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교사의 역할을 돌아보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늘어났고, 생활습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친구들과 함께 웃고, 놀이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누구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더 일찍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아이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지만, 사실 그 아이는 저에게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 주는 어른이 필요하며,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장려상 · 박유미

## 경험에 전문지식을 더하다

1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쌓은 현장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션나노디그리 과정은 그 경험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새로운 눈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동상담을 배우기 전에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행동을 보기 전에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격이나 수료증 하나를 더 갖게 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린이집을 졸업했지만 지금도 그 아이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만날 때도 멀리서 뛰어와 “선생님”이라며 안아줍니다. 어린이집을 떠난 뒤에도 아이의 소식을 들을 때면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오릅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작은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한 아이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 내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1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느낀 가장 큰 보람입니다.

##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교사로

앞으로도 저는 아이의 행동을 빨리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 행동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어 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미션나노디그리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자, 12년의 현장 경험을 다시 바라보게 한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빨리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믿고 이해하며 기다려 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기보다, 아이를 이해하는 사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아동상담전문가이자 교사의 모습입니다.